

2017.1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12.26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이승선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
국장, 신영환 편집부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10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2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12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TV특강) 강사 선정 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강사로	TV특강(12/4) ‘100세 시대 부모미래, 자녀미래’ 노후설계전문가 강사 등 재미있는 강사 출연, 유익한 진행	12월
보도	12월 연말 강도 범죄 등 뉴스 이외 훈훈한 뉴스 발굴 필요	정부청사 비정규직 3000여명 정규직 전환(12/27), 수문개방 금강생태계 회복(12/28) 등 보도	12월
보도	뉴스 기사 작성 시 전년대비 금년 수치 통계 정확도 살려야	기부(12/29) 금액 기사 작성 전년 대비 6.25% 감소한.... 등 통계 정확성 가미	12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TV특강) 대상 계층 확실한 강사 선정과 특강 내용 정하도록	TV특강 ‘100세시대 부모미래, 자녀미래’(12/4) 노후설계전문가 강사 ‘위기청소년 구출하기“(12/18) 범죄예방전문가 출연	12월
보도	리포트물이 없는 단순 나열식 보도 벗어나야	대전교도소 방동 이전(12/28), 지역도 UHD시대(12/29), 충남가뭄해법(12/30), 촛불시민(12/31) 등 기자 참여한 리포트물 확대	12월
교양	트롯트 노래 프로그램 MC의 발언(섹시하다) 유의	‘가요베스트’ 프로그램 MC의 어휘 선택 시청자 거슬리지 않는 어휘 사용	12월
교양	교양프로그램(전국이 보인다)에서 맛집이나 행사 소개도 좋지만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소식을 담기를	“전국이 보인다”프로그램에 ‘울산 벼루장인, 서학동 예술마을(12/23), 순천 청년 희망을 노래하다(12/30)’ 등 감동 있는 다양한 내용 소개	12월
교양	TV 특강 프로그램에서 강사의 토크 이외 시청자 눈을 사로잡을 기법 필요	TV특강 ‘100세시대 부모미래, 자녀미래’(12/4)“위기청소년구출하기“(12/18) PPT자료 화면 적극적 활용	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7.05.01- 18.04.30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7.05.01- 18.04.30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1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 (12월26일)에서는 초대석을 통해 대전MBC가 파업을 했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에 대하여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파업으로 인해 대전MBC에 대해 시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신뢰도가 떨어진 시점에 주부시청자들이 대다수인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방송이 시작되면서 대전MBC가 파업을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적절했다고 본다. 많은 시청자가 대전MBC를 시청하지 않고 있다</p> <p>이에 앞으로 더욱 고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전MBC가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강은혜).</p>	<p>오랜 파업을 마치고 다시 시작한 ‘생방송 아침이 좋다’이기에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청자들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방송다운 방송,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보도	<p>대전MBC가 지역의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대전MBC가 그간 뉴스 프로그램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방송에서 뉴스의 취재와 보도과정 등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 그간의 보도된 뉴스, 제작 후 보도되지 않은 뉴스 등의 통계에 의한 것보다 특정뉴스에 초점을 맞추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이상진).</p>	<p>파업의 여파로 뉴스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청자들에게 신뢰받는 공정성 있는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다.</p>	○		
보도	<p>뉴스 프로그램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제보된 내용을 받아 전달하기 보다는 지역의 이슈를 정확히 선정하여 내용을 심층취재 후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보도내용은 보다 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전달하여야 하고, 기자의 전문영역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상진).</p>	<p>뉴스 취재원을 다각화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기획 뉴스를 발굴 취재하도록 하겠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가려운 곳을 찾아 보다 더 심층적인 뉴스 취재를 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시사토론M은 빠른 시일에 방송되길 희망하며, 다만 그간의 진행방식을 벗어나 사회자가 중앙에 위치하기보다는 측면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면 한다(이상진)</p>	<p>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구성은 한 번 더 고민해보겠다. 다만 현재의 진행방식은 나름 안정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참작해 보도록 하겠다.</p>		○	

<p>교양</p>	<p>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은 한주간의 지역의 이슈를 보다 심층적·분석적으로 다루고 있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다만 프로그램 명칭은 개명이 필요해보이고, 시청율이 높은 방송요일과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이상진).</p>	<p>‘시사플러스’는 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역의 대표적인 심층 시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명칭은 프로그램 정체성과 연관된 중요한 사항이고 오랫동안 시청자들이 인지하고 있기에 변경은 쉽지 않다. 시간대 조정은 지역에서 사용할 시간대의 한정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불철 개편 때 논의해 보겠다.</p>			
<p>교양</p>	<p>지난 12월 7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경청” 프로그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경청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하여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이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자체에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시민들이 시정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또 건의하는 자리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방적인 홍보에 그쳤다면, 경청은 양방향 소통을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보다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로 운영되어 시정에 대하여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포맷의 방송 형태로 생각된다.</p> <p>또한, 땡기지라는 ICT 기술기반의 의견 취합도구를 택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실시간적으로 취합되고 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진행이 돋보였다. 이러한 방송 형태가 널리 확산되어 갈등이 증폭되기 이전에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 <p>프로그램 운영이 기존의 방송형태와 달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제작을 위해 힘쓴 여러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한다(함진호).</p>	<p>많은 관심에 고맙게 생각한다. ‘경청’은 지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민이 방송을 통해 소통하는 소중한 장(場)이다.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견 개진을 통해 지자체장과 양방소통을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p> <p>소통의 도구는 IT강국의 청병인 스마트폰으로 그동안 3번 편성, 방송하였다. 새로운 형식, 우수한 콘텐츠로 지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많은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		
<p>교양</p>	<p>‘TV특강’ (12월18일)을 시청하였다. 처음에 역대 등장게스트들 영상이 나오는데 길이가 긴 것 같다. 게스트가 자기소개를 할 때 밑으로 경력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서 개선되었으면 한다.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준 게스트가 대단하게 느껴졌다(정철상).</p>	<p>게스트 소개 시 크를 자막이 빠르다는 지적은 개선토록 하겠다.</p>	○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 (12월 26일)에서 핸드벨 앙상블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는데 핸드벨을 연주할 때 MC들의 멘트가 계속 이어져 듣기 불편했다. 핸드벨의 유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유익했다. MC들 뒤에 방송로</p>	<p>핸드벨 연주시 진행자 멘트가 많아 연주를 충분히 들을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진행자 뒤편의 동영상이 시선을 분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작진과 상의하겠다.</p>	○		

	고가 TV화면으로 움직이면서 나오고 있는데 시선이 분산되었다(정철상).			
교양	건강플러스의 '건강이 보인다' (12월 30일) 이 날 방송은 '우울증' 에 대하여 방송했다. 우울증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치료를 받아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진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았다(정철상).	칭찬에 감사하다. 좀 더 알찬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교양	“어영차 바다야” (12월 19일)편을 시청하였다. 오정혜씨의 진행으로 <완도김> 통영 <감성돔>, 섬을 지키는 주민의 삶 이야기 겨울 별미 <가리비> 요리 등 다양한 내용들이 펼쳐졌다. 현지 주민의 구수한 사투리, 잔잔한 바다의 풍경, 완도김 생산과정, 요리 정보 등의 생생한 현장화면이 재미를 배가시켜 시청하기에 좋았다. <감성돔>의 경우 통영과 여수의 청정바다에서 양식되는 화면을 보고 있자니 특수한 어종으로 헛감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통해 섬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섬 주민 이재인씨도 보기 좋았다. 겨울 별미 가리비 요리도 그 별미와 맛의 비결을 찾기 위해 여러 맛집을 선정하여 촬영한 것도 보기 좋았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애를 쓴 제작진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송길현).	‘어영차 바다야’는 목포M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환 프로그램이다. ‘어영차 바다야’는 우리나라 삼면을 이루고 있는 바다의 다양하고 풍성한 현장 소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유익한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12월 23일)를 보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할 때 법원의 영상이 나오는데, 법원의 영상을 조금 더 다채롭게 촬영해서 자주 바뀌주면 좋겠다(김은주).	법원 영상을 많이 확보하여 뉴스 내용에 적절하게 편집하여 전달하도록 하겠다.	○	
보도	뉴스데스크(12월 27일)을 시청하였다. 지역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보도는 약간 보도가 아닌 주장 같아서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왜 대전MBC가 사장 퇴진을 주장 했는지 잘 몰랐던 본 위원으로서, 위 보도를 통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데스크 첫 보도로 내보낸 데는 앞으로 지켜봐 달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단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해서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대전MBC는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보존 등 공익적 기능의 강화와 한편으로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 공론장 마련 등 지역 저널리즘을 실천함으로써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공익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에 지역성은 여전히 방송의 핵심기치 중 하나이다. ‘대전MBC뉴스’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 왔지만 미진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 시청자와 함께하는 대전MBC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 하겠다.	○	

	있었다. 더불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도해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한 주목을 끌었다고 생각된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보도가 뭔가 힘이 있는 느낌이었다(김은주).			
교양	TV특강(12월 18일) “망치형사의 위기 청소년 구출하기” 편이 방송되었다. 강의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서, 다소 지루했다. 거의 동네 문화센터 강의 수준인데 이런 강의를 방송국에서 10분도 아니고 50분간이나 내보내는 것은 전파낭비라고 생각된다. 강의의 질을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김은주).	‘TV특강’은 지역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명사의 강연으로 구성되기에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프로그램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알찬 강사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교양	“스마트토크쇼 경청” (12월19일)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스마트폰 앱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다 프로그램 내용에 집중하고, 한편으로는 즐기며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역민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것이 좋았으며, 특히, 객관식 문항뿐 아니라 오픈형 응답을 통해 보다 생생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비교적 매끄럽고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련된 스튜디오와 비교적 깔끔한 자막으로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담보하였다(신중성).	‘스마트토크쇼 경청’은 지역에서 최초로 기획, 방송된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장과 지역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높였다고 자부한다.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입담좋은 패널, 아기자기한 구성을 하도록 노력했다.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 세트를 만들고 사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히 신경 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	○	
교양	테마여행 길에서 <부산지하철 1호선 여행>(12월 21일)이라는 부제를 달고 지하철 여행을 통해서 부산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였다. 동래역을 시작으로 39개 역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내 소개하였는데 제작 아이디어가 참신해 보인다. 이를테면 SNS에 떠오르는 카페 등은 기존의 매체에서 다루어진 곳을 찾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SNS와 친밀한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명소를 찾아보는 방법은 좋았다고 본다. 대중교통을 활용해 각 역 관련 곳곳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화면에 등장시켰다. 구성을 칭찬해주고 싶다. 마지막 일몰 명소 또한 인상적이었다(김종문).	‘테마기행 길’은 지역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각사가 자존심을 걸고 제작하기에 항상 새로운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청자에게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	

